2023 09
제224호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밝은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대덕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라피 박진희 作

02 좋은 글, 좋은 시

03 추석 특집

04 구정소식

05 [인터뷰] 이소을 베이커리 해밀 대표

06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마을공동체 신탄나루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08 열린의정

10 책책책! 책을 소개합니다

11 대덕톡톡

석장승

이계창(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주소: 대덕구 쌍청당로 178번지
이름: 법동 석장승
　　대전광역시 민속문화재 1호
외형: 돌기둥에 넓은 이마, 웃는 눈, 두툼한 코
고향: 법천골 냇가

고목으로 살다가 장승이 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액운을 막아주고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며 살았다

금줄 걸고 황토 뿌려 부정을 막고
사람과 신과 자연이 하나 되었다

무심코 지나는 사람에게도
안녕을 묻는다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 : 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3년 9월 5일(제224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사상 유례없는 폭우와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어느덧 청량한 바람, 높고 푸른 하늘과 함께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추석 명절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족들이 제대로 한자리에 둘러앉아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추석 명절을 맞게 됨을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넉넉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즐겁고 여유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흔히 가을을 수확과 성숙의 계절로 표현합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이 다사다난했던 여름을 넉넉히 견뎌내고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신선한 날씨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계절을 맞아 구민 여러분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고 알찬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또한 구민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희망 '잘사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그간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동안 마음으로만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함께 맘껏 웃고 정담을 나누시는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나길 기원 드립니다.

2023. 9

대덕구청장 배상

풍성한 한가위에
대덕구 전통시장에서 장보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추석은 예년과는 조금 다르다.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 격리 의무가 없는, 온 가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친척들과 둘러앉아 여유롭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모두가 차례상과 먹을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올여름 폭우와 폭염으로 채소류부터 가격이 오르는 등 고물가로 인해 장보기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장을 보지 않을 순 없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풍성하게 장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 바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다.

우리 대덕구에는 신탄진시장, 중리전통시장, 법동전통시장, 송촌종합시장 등 4곳의 전통 시장이 있다.

이번 추석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넉넉한 인심과 추억이 있는 우리 지역 대표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건 어떨까?

송촌종합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3)

법동전통시장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5번안길 22)

신탄진시장
(대전 대덕구 석봉동 417-1)

중리전통시장
(대전 대덕구 중리북로37번길 26)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은?

제례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설날 또는 추석에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차례 상 차림은 각 지방이나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먼저 맨 위에 놓이는 자리는 '신위'라고 부르며 제사상의 방향은 신위가 놓은 쪽을 북쪽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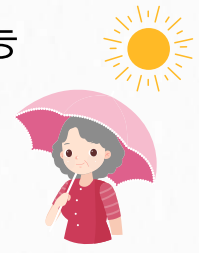
차례 상은 보통 1~5열까지 있으며 신위를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다.

1열은 식사류로 숟가락, 젓가락과 함께 밥, 국, 술잔, 시접, 편, 송편 등을 놓는다.

2열은 주요리인 고기, 생선 구이와 전을 놓으며, 3열은 육탕, 소탕, 어탕 순으로 탕류를 놓게 된다. 4열은 왼쪽에는 포, 오른쪽에는 식혜를 놓고, 5열에는 과일이나 과자류를 놓는다. 흔히 아는 '홍동백서'라는 용어를 사용되는데, 붉은 색 과일은 동쪽,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으면 된다.

폭염 대응 '양심 양산 대여소' 운영

구청 민원실 · 동 행정복지센터 등 16곳서 오는 30일까지 자유롭게 대여 가능



대덕구가 폭염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한다.

이번 양심 양산 대여소 운영은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폭염 시 양산을 쓰면 자외선 차단은 물론 체감 온도를 10℃가량 낮출 수 있어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대전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900개의 양산을 확보했다.

양심 양산 대여소는 대덕구청 민원실과 각 동 행정복지 센터, 지역 도서관 등 총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덕구 지역 전 경로당에 '구급 가방' 비치

물품 유효기간 주기적 점검 매월 원스톱 건강관리 실시

대덕구 지역 모든 경로당에 생활 속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용 구급 가방'을 비치한다.

이번 응급처치용 구급 가방은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 전 124곳 경로당에 배부했다.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와 12개 동 소속 간호사가 협업해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의 기초 건강을 측정하고, 건강상담 · 교육 ·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또한, 교통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신탄진동, 덕암동 소재 경로당 6곳을 대상으로는 대전보훈병원 의료진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묻고 답하는 건강강좌'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구는 구급 가방에 외상 시 간단한 상처 처치를 할 수 있는 △소독약 △상처연고 △화상연고 △종류별 밴드 등 10종 22개의 물품을 구비해 뒀으며, 배부한 물품의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나눌 수 있음이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이소을 베이커리 해밀 대표

빵 · 케이크 등 나눔… 장애인 학생 제빵 실습 등 재능기부 활동도
지난해 한국효문화진흥원 효부상 수상… '빵 체험센터' 조성이 꿈
"빵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고리… 앞으로도 나누고 사랑할 것"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는 행복이 늘 결핍돼 있다고 하소연한다. 정말 작은 만족감에 마음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삶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까?

아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묘한 감정을 느낄 때, 전하는 이의 마음을 듬뿍 담은 소중한 선물을 받을 때 등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감을 주는 일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새여울아파트 인근에서 '베이커리 해밀'을 운영하는 이소을(51) 대표는 '나눌 수 있음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며 제빵 기술과 자신이 만든 빵을 통해 일상에 소소하게 녹아 있는 작은 행복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다.

사실 이 대표는 늦깎이 제빵사다. 전직 레크리에이션 강사 출신이자 한때 남편과 함께 태권도장 사범으로 일하는 등 제과 · 제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랬던 그녀가 제빵사의 길로 접어든 것은 빵을 통해 이웃들에게 건강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특히, 자기 딸이 빵 만드는 것을 너무 좋아해 같이 일을 하며 자립 기반을 다져주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018년 1월 이곳에 빵집을 개업했다고 한다.

여느 프랜차이즈 제과점과는 달리 천연발효 · 유산균빵 등 건강식 빵만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이 대표는 개업 당시부터 빵과 생일 축하케이크 나눔 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매일 평균 5만원 상당의 빵을 기부하는 것은 물론 신탄진동 저소득층 아동 25명에게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자신이 직접 정성스레 만든 케이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소을 대표는 "누군가의 특별한 날에 기분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 케이크 나눔 활동을 펼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아이의 첫 생일 케이크를 받아 행복해하는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았다고 좋아하시던 어머니, 태어나서 내 생일 케이크는 처음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던 삼남매의 엄마 등 케이크 나눔 사연을 전하며 "제가 만든 케이크로 이 같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나눔으로서 더 커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지요"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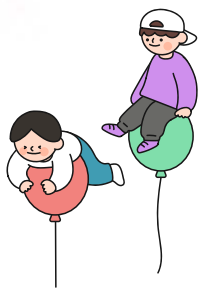
이 대표는 빵 · 케이크 나눔뿐만 아니라 △어르신 빵 만들기 교실 △장애인 거점학교 학생 대상 제빵 실습 등 자신의 제빵 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과 실버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또한 이소을 대표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95세)를 결혼 이후 지극정성으로 모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23일 성균관유도회 대전시본부, 한국효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제28회 '효자 · 효부 · 모범청소년 표창식'에서 효부상을 받았다.

대덕구, 특히나 대청댐과 잘 어우러진 공간에 누구나 찾아와 빵을 만들고 자연을 즐기고 갈 수 있는 '빵 체험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는 이 대표. 그에게 '빵'이 어떤 의미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빵은 단순히 음식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고리입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삶이요,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뭉쳤다
마을공동체 '신탄나루'



2016년 8명의 엄마들 모여 자녀교육 품앗이 · 봉사활동 펼쳐
대덕구 팟캐스트 '맘톡마을톡' 방송 운영 등 마을 홍보대사 역할도
박지현 회장 "따뜻한 공동체 신탄나루 유지되길 소망"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그만큼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탄나루(회장 박지현)는 신탄진권역 열혈 엄마들이 모여 자녀교육 품앗이와 봉사활동 등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지난 2015년말 구성된 마을공동체다.

박지현 회장, 배경심 총무를 비롯해 윤미화 · 이준경 · 하영하 · 박정옥 · 이미진 · 채수진 등 6명의 운영위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신탄나루의 태동(胎動)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덕암어린이작은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아이들의 독서지도 등 각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생면부지(生面不知)였던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자녀교육 등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갖게 됐다고.

특히, 구성원 대부분이 남편의 직장이 있는 목상동 등 신탄진지역으로 이주해온 외지인인데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던 중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영어 교육, 역사 교육 등 모두 다른 전공 공부를 한 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고자 마을공동체 '신탄나루'를 2016년 9월 1일 신탄진 공식 등록했다.

박지현 회장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나의 고향이요,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활동, 재능기부 교육활동 등 구성원 각자의 재능을 마을에서 풀어내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신탄나루'의 핵심은 재능기부 교육활동이다. 각자 대학 시절 연마한 전공지식을 살려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비단 회원 자녀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금전적 이득이나 대가가 아닌 그저 함께 해서 즐거운 마을공동체, 배움과 소통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배워서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 따뜻한 사랑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더 다양한 활동을 위해 △전래놀이지도사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열정을 발휘한 회원들도 있다고 한다.

나아가 신탄나루는 다사랑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마을 상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홀몸 어르신 주말 도시락 배달'을 실시하는 등 마을 구석구석을 보듬고 가꾸고 있다.

신탄나루 회원들의 왕성한 활동은 남편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이해가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러나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사용되는 활동비가 장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포기'는 없었다.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진행된 굿네이버스와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희망TV SBS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리 마을 레벨업 프로젝트 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밖에 이들은 대덕구 팟캐스트 '대덕톡톡톡'에도 참여해 '맘톡마을톡'이라는 방송으로 생생한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느덧 출범 7년차가 된 신탄나루. 항상 부담 없는 마을공동체로 유지하고 싶지만, 경제적 · 환경적 변화 등으로 공동체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등 신탄나루 회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여의찮아 박 회장이 사비를 들여 현재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활동 회원들이 각자 직장을 다니게 되는 등 예전만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지현 회장은 "구성원들의 역량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발휘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의 연계도 꾸준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나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손 내밀어 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마을에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신탄나루가 앞으로도 묵묵히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유지되길 소망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두부 안에 고기가 들어있다
고기 품은 두부전골 '매봉식당'

- 대전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113(법동 189-10) / 042-625-3345
- 고기품은 두부전골(小 · 2인) 2만7000원 / 콩국수 1만원(여름 한정)
- 영업시간: 11:00~21:00(매주 월요일 휴무) 브레이크타임 : 평일 15:00~17:00, 주말 16:00~17:00)

전국 맨발 걷기 열풍의 중심 황톳길로 유명한 대전 계족산. 이곳 계족산 아래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25년 동안 2대째 이어오고 있는 '매봉식당'이 있다.

대전 대덕구 법2동에 있는 이곳은 두부 안에 만두소처럼 다진 고기를 넣은 '고기품은 두부전골'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지난 2022년 10월 7일 방영됐다고 한다.

이 매봉식당에서 25년 동안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고기 품은 두부전골'의 탄생비화(誕生秘話)가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김정겸 대표는 "제가 어렸을 때 밀가루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도 만두를 좋아하다 보니, 어머니가 이북의 두부밥에서 영감을 얻어 두부 만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튀긴 다음 안을 갈라 그 안을 고기로 채운 것이죠. 저의 최애(最愛) 간식인 두부만두를 전골로 끓여낸 게 매봉식당의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라고 소개했다

2018년부터 매봉식당 2대 경영자가 된 김정겸 대표는 처음부터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

일단 18개에 달했던 메뉴를 과감히 없애고 콩국수(여름 한정)와 두부전골에만 집중했다. 특히 '고기품은 두부전골'로 이름을 바꿔 차별화된 메뉴의 가치를 높였다.

여기에 식당 운영 매뉴얼화, 주방 리모델링 실시 등 더욱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매봉식당은 좋은 식재료 사용을 위해 새벽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 직접 가는 것은 물론이고 배추, 대파, 양파, 가지 등 채소의 30~40%는 부모님이 농사지은 수확물로 채우고 있다.

김 대표는 "가업을 승계한 사람은 선대가 오랜 기간 쌓아온 명성과 기대감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배로 들여야 한다는 것을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대전의 맛집'을 넘어 '전국의 맛집'하면 가장 먼저 매봉식당이 떠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초특급 가성비'한식뷔페'가 법동에 떴다
가격도, 맛도 다 잡은 잔디한식뷔페

-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5번길 111 1층(법동 202-4) / 042-721-9939
- 1인 6600원
- 영업시간 : 월~금(11:00~20:00) / 브레이크타임 (14:00~17:00) 토(11:00~14:00) / 일요일 · 공휴일 휴무

외식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점심을 먹을 때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근 '편도족(편의점 도시락),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등 신조어의 등장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대덕구 법2동 잔디한식뷔페(대표 권잔디)에서는 1인당 6600원이라는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어르신, 주변 상인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식당에 들어서면 깔끔한 용기에 길게 진열된 음식들이 눈에 들어온다. 밥과 국을 제외하고도 소불고기, 감자조림, 배추김치, 어묵볶음, 버섯부침, 샐러드 등 15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정성스레 준비돼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낮을 거라는 섣부른 편견은 절대 금물이다. 모든 음식을 대학에서 요리학을 전공한 권잔디 대표가 매일매일 손수 만들어 내놓고 있다.

권 대표는 강원도 한 호텔에서 요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 30세 청년이다. 호텔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전으로 다시 내려온 그는 약 2개월간 매일같이 법2동 골목을 돌아다니며 상권분석을 해 현재의 매장을 임대하고 본격적인 오픈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렇게 팔아서 이윤이 남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권 대표는 "다리품 파는 거죠. 새벽 장 보고, 점심 장사 끝내고 브레이크타임 때 또 한번 장을 봅니다. 야채·고기 할 것 없이 직장 시장에 가서 사면 업체에서 공급받는 가격보다 30%~5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권 대표는 지난해 어린이날을 맞아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는 등 선행도 펼치고 있다.

권잔디 대표는 "마음과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음식점 경영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의회

대덕구의회, 수해 복구 지원에 '구슬땀'

청양군 피해농가 대상, 의원 전원 · 직원 참여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지난 8월 2일 충남 청양군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홍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 8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16명 등은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농가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을 정리하며, 농민들의 일손을 도왔다. 또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김홍태 의장은 "'극한 호우'에 충청권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했다"면서 "미약하나마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목 이 조례

시민경찰연합대 지원 근거 마련

전석광 의원, 보조금 규정 등 담긴 조례안 발의

전석광 의원

대덕구의회가 시민경찰연합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전석광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시민경찰연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민경찰연합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조직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등 지원, 교육 · 포상, 예산 지원에 따른 감독 ·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구민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과 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시민경찰연합대는 지역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로 이뤄진 봉사활동 조직이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앞장

양영자 의원,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양영자 의원

대덕구의회가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양영자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통합해 공공성, 심미성, 범용성, 범죄 예방 등 공공디자인의 취지와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 · 홍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통합하고 범용디자인과 공공조형물 설치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 명시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위 있고 아름다운 대덕구 조성을 통해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의회 공원사랑연구회 "현장에 답이 있다"

명품공원 정책개발 일환, 금강보행교 등 선진지 견학

대덕구의회 공원사랑연구회(회장 양영자)는 지난 8월 16일 '대덕형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

연구회는 이날 지역 공원 조성 후보지인 대청대교-현도교와 폐선 구간을 방문한 데 이어 우수공원으로 평가받는 세종시 금강보행교와 수변공원 등 선진지를 견학했다.

양영자 회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공원 조성 후보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선진지 우수공원 견학을 통해 대덕형 명품공원 정책개발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6월 공식 활동에 나선 공원사랑연구회는 이용자 중심 맞춤형 공원 조성 정책개발을 목표로, 이달 말 최종 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기고

'한숨' 깊어지는 소상공인, 지자체가 적극 나설 때다

김기홍 의원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코로나19 보릿고개를 힘겹게 견뎌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

그동안 대덕구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러나 고물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지금, 그간의 사업들이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정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이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필자는 3가지 부문의 정책적 지원을 제안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융 지원'이다. 먼저 '카드·배달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 기업 등 우선지원대상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구가 추진해 온 '대덕뱅크'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정 악화와 채무를 겪는 이들에게 대출금 이자 지원은 어쩌면 마지막 버팀목이었을 수 있기에 이 사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 지원'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앞으로의 난관 또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비마다 버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성장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창업부터 경영 개선, 새로운 도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상권 분석 및 교육을 해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고,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경영 개선을 위한 비 과밀 업종 전환 컨설팅, 디지털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패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파산 등 금융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도울 수 있다.

셋째,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식 지원'이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휴식 지원도 중요한 정책일 것이다. 1인 사업체나 1인 매장을 운영하며 매출 부진에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임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과 '휴식'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풀뿌리 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지역경제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토양을 만들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대덕구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장기 정책을 선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거름이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역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하고, 대덕구가 '경제 도시'로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말이다.

사서의 소소한 책 꾸러미 '사소한 책'

9월 주제 | **책 속에 살아있는 역사**

한국인도 몰랐던 우리 도시 속에 숨겨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와
다양한 테마로 세계사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100가지 동물로 읽는 세계사
/ 사이먼 반즈

세계사에서 절어도 절반 이상은 동물이 주인공이라는데... 100가지 동물을 하나씩 살피다 보면 어느새 세계사가 퍼즐처럼 맞춰진다.

세계사를 바꾼 화학 이야기 2
/ 오미야 오사무

건축 패러다임을 바꾼 '철근 콘크리트' 개발, 자동차 사회의 주춧돌이 된 '공기를 채운 고무 타이어' 발명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화학' 이야기

(세상을 바꾼 한 방울) 50가지 기름 이야기
/ 도현신

믿거나 말거나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지금까지 인류는 기름 덕분에 생존했다. 세상을 만들고 바꾸고 빚내 온 기름에 관한 50가지 이야기.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
/ 이동민

기후는 언제나 인류에게 위기와 기회였다. 지리학자만의 드넓고도 촘촘한 시선으로 문명의 운명을 이끈 기후의 힘을 조명한다.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 함규진

하루 한 도시, 가볍게 여행을 떠나듯 책을 펼치면서 수천 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반도 전체의 5천 년 역사를 한눈에 꿰뚫어 본다.

* '사소한책'은 대덕구 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주제를 선정해 관련도서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문화 가족! 골든벨을 울려라!!

가족이 함께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독서생활화를 통한 문화공동체운동 실현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문화 가족! 골든벨을울려라!!'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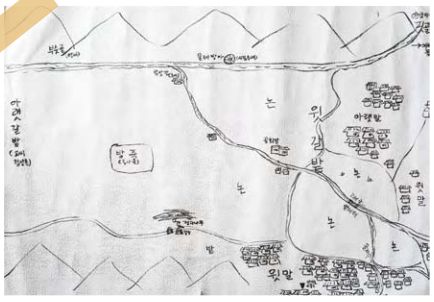
- 일시 / 장소 : 2023. 9. 16 (토) 14시 / 대덕구청 청령관
- 대 상 : 대덕구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가족
  (부모1+자녀1/조부모1+손주1) 100명
- 신청기간 : 2023. 8. 7.(월)부터 50가족 마감시까지(선착순 50팀)
- 신청방법 : 대덕구새마을회 현장접수 원칙
- 내용 : 식전공연, 퀴즈대회, 시상
- 시상내용
  - 골든벨가족 1팀 (10만원권 상품권)
  - 실버벨가족 5팀 (5만원 상품권)
  - 장려상가족 10팀 (3만원 상품권)
- 주최 및 주관 : 새마을문고중앙회대전시지부 / 새마을문고대덕구지부

문 의 : 대덕구새마을회(☎042-622-1947)

잊혀가는 대덕의 수몰마을을 찾아서

이현동

배오개 이현(梨峴)동… '고래골' · '여수바위' 설화 품어
농토는 수몰… 심곡 · 이현마을은 옛 모습 그대로
대덕 대표 축제 '대덕물빛축제'기획 모티브 활용


▲ 이용우 구술자의 딸이 그려준 옛 마을 지도

▲ 수몰 전 현재 집의 옛날 모습

이현동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소속된 법정동이다. 대덕구 동북쪽에 자리하며, 북쪽으로는 갈전동, 서쪽으로는 장동과 용호동, 동쪽으로는 동구 효평동과 접한다. 이현동은 뒷산 모양이 둥글넓적한 배(梨)와 같이 생겨 '배산'이라 불렸다. 배산 동쪽 아래 갈밭에서 심곡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배오개라 했는데, 이 고개의 이름을 따서 이현(梨峴)동 이란 명칭이 탄생했다.

대덕문화원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사업'에 참여한 1929년생 이용우 구술자(딸:변영숙)는 18살에 갈전동으로 시집와 현재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이용우 구술자는 자신의 친정 오빠가 대청댐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고래골(이현동 일대의 옛 지명)이 가장 상서로운 기운을 갖고 있다고 거기가 물에 잠기면 안 된다며, 탄원서까지 써줬다"라며"하지만 결국 청와대 문턱도 넘지 못했다"라고 회상했다.

대전 대덕구가 지난 4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대덕물빛축제'는 바로 이 같은 이현동의 '고래'라는 옛 지명과 관련한 구전설화를 모티브로 기획된 것이었다.

이밖에 1956년생으로 삼정동 이촌마을 출신인 이상만 구술자는 "삼정 · 이현동은 담수가 늦게 되면서 농사를 조금 더 지었고, 댐 건설 마무리 과정까지 직접 참여했다"라며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현재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통장 일을 맡고 있다"라며 여전한 고향사랑 마음을 내비쳤다.

〈참고자료〉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 결과집 · 스토리북

대청문화전시관
목재 체험 수강생 모집

●내 용 : 생활목재(도마, 의자, 트레이, 시계, 기타등)
●일정 및 시간 : 2023년 9~10월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2시)
●대 상 : 선착순 대덕구 거주 성인(남·여) 5명
●장 소 : 대청문화전시관 목재 체험관
(대전 대덕구 대청로 607)
●신 청 : 전화 접수(☎010-5454-7028)
●수강료 : 무료 / 재료비 : 추후 공지

문 의 : 대덕구 공원녹지과 대청문화전시관(042-932-0311)

음식점 위생등급제
SCAN ME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영업자가 인증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64개 항목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3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합니다.

별을 획득한 위생등급 인증업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대덕구 위생과(☎042-608-6891~6895)

하늘에서, 땅에서 바라본 대덕

대덕구

2023년 대덕구 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2023. 4. 26.(수) ~ 11. 29.(수) 18:00까지

공모내용 대덕구를 일반 카메라 혹은 드론으로 찍은 사진
응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단체 제외)
출품조건 부문별 중복 참여 가능

구 분	작품 수	주요내용
일반	부문 당 1인 3점이내	○DSLR을 포함한 모든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기로 찍은 사진 ○메타정보(EXIF)가 없는 작품은 인정하지 않음(촬영일 필수)
드론		○드론으로 촬영하여야하며, 모든 촬영은 드론 및 항공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메타정보(EXIF)에 촬영일시, 위도, 경도가 모두 나타나야함 ○GPS가 없는 기종의 경우 촬영장소 검증자료 제출 필수
※ 보정본 제출 시 원본 함께 제출 ※ 긴쪽의 사이즈가 3000px이상, 10MB이하의 사진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 jbr0515@korea.kr
① 제목 : [2023년 대덕구 사진 공모전_(일반/드론)_본인 이름]
② 파일명: 촬영일자_촬영장소_본인 이름_작품연번

결과발표 2023. 12월 중 / 개별통보 및 대덕구청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총 700만원(총 26개 작품 선정)

구분	작품 수	일반	드론
최우수	각 1점	70만원	100만원
우수	각 1점	40만원	70만원
장려	각 3점	20만원	40만원
입선	각 8점	10만원	20만원

※ 동일 응모자의 중복 수상불가

문의사항 대덕구 기획홍보실 (☎042-608-6533)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추석 맞이 귀성객 자동차 무상 점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기 위해
미리 무상으로 자동차 안전점검 받아보세요

- 일 시 : 9월 24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 대 상 : 대덕구에 주소를 둔 구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우선)
- 장 소 : 대덕구청 주차장 /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
- 점검 내용 :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안전점검
  - 부동액, 엔진오일, 각종 오일류, 워셔액 점검 및 보충
  - 전구류 점검 및 교체
  - 타이어압 점검 및 보충
  - 배기가스 점검 및 조정
  - 기타 차량 소모품 점검

문 의 : 대덕구 교통과(☎042-608-5271~7)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부 기한 : 9월 16일~10월 2일
-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주택분 : 7, 9월(½씩 고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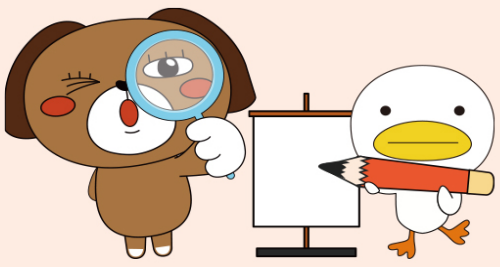
문의 : 대덕구 세정과 재산세과표팀(☎042-608-6243)

부정수급 ZERO, 복지 체감도 UP

복지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국번없이 129 또는 042-608-6324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횡령과 유사한 범죄**로서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E 22th DAECHEONGHO MARATHON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제22회 대청호 마라톤대회

Run for the Love of DAECHEONGHO

2023. 10. 15.(일) 08:30 / 대청공원
www.dcmarathon.or.kr

| 접수기간 | 2023. 7. 3.(월) 10:00 ~ 9. 8.(금) 16:00
하프코스(21.0975km), 미니코스(10km), 건강코스(5km)
| 참가비 | 하프, 미니 30,000원 / 건강 20,000원

| 주최 | 대전광역시 대덕구 · K water · 대전NEWS24 | 주관 | 대덕구체육회 · 대전육상연맹 | 후원 | 대전광역시